

화단 및 절화용 분홍바늘꽃 재배기술

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
and Potted Plant
of *Epilobium angustifolium*
Native to Korea.

L A N D S C A P I N
G



송 정 섭
농업연구관, 이학박사
(031-290-6140, songjs@rda.go.kr,
www.wildflower114.com)

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
(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
Institute, RDA)



▲ 꽃이 진 뒤 꼬투리가 열리면서 속에 있던 은백색의 털들이 핀 모습

한 여름에 꽃이 피었을 때의 모습도 장관이지만 초 가을 꽃이 진 뒤 꼬투리가 터지며 드러내는 하얀 솜털의 모습도 장관이다. 몇 포기가 균락을 이루며 정원에 심겨진 모양도 좋지만 넓은 면적에서 보는 꽃이나 하얀 종실들의 모습은 거의 환상적이다. 공원의 낙엽성 교목 아래 심어도 좋고 도로변 같은 절개지 사면에 심어도 좋다. 꽃 모양이 특이하고 꽃대도 길어 꽃꽂이용 소재로도 훌륭한 자생화이다.

1. 생리 생태적 특성

주로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다.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. 7~8월에 줄기 끝에 지름 2cm 정도의 분홍색 꽃이 총상을 이루며 핀다. 열매는 9월 중순~10월에 성숙하는데, 길이는 4~8cm의 삭과(蓂果)이며 은백색 털 속에 씨앗들이 박혀 있다. 씨앗은 휴면성을 가져 발아가 쉽지 않다. 자생지가 높은 산이라서 추위와 습지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매우 약하다.



▲ 꽃 전체 모양으로 꽃대가 곧아 꽃꽂이용으로도 쓰임



▲ 만개했을 때 분홍바늘꽃의 꽃 모습

2. 재배기술

가. 번식

씨앗은 너무 익으면 휴면에 들어가므로 9~10월 경 약간 미숙한 채 따서 바로 뿌린다. 씨앗 수명은 1년 정도밖에 안되는 단명종자이므로 그 해에 받은 씨앗을 쓰는 것이 좋다. 줄기 삼목도 되지만 뿌리가 옆으로 쉽게 퍼져 나가며 뿌리에 난 눈들이 나중에



▲ 식물원에서 대규모로 식재되어 있는 모습

식물체로 자라므로 이 뿌리들을 봄, 가을에 3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서 포기로 늘려가는 것이 가장 쉽다.

나. 재배관리

원래가 고산성 식물이므로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조건에서는 매우 약하다. 바람이 잘 통하고 반그늘 지며 약간 습기가 있는 곳이 좋다. 흙은 어느 정도 보습도 되고 물빠짐이 잘 되는 사질양토가 좋다. 5월 중순경에 줄기 중간쯤을 한번 잘라주면 키는 좀 작아지지만 꽃대 수가 많아져 볼륨감 있는 모습을 연출한다.

다. 병해충 방제

분홍바늘꽃에만 특별히 발생하는 병해충은 거의 없다. 씨앗으로 번식할 때 씨앗을 뿌린 뒤 싹이 나올 무렵 입고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초기에 다찌밀 액제를 뿌려준다. 🌿